

단 신

혈중 연(lead) 농도의 출산 후 변화

이 강 속

임신기간중 연(lead)에 폭로시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태반을 통해서 폭로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모성의 혈중 연농도의 임신기간에 따른 변화가 태아 폭로의 주요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몇몇 전향적 연구에서 임신기간중 혈중 연농도가 평가되었으며, 임신기간중 혈중 연농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신으로 인한 혈액의 증가로 예상되는 것보다 크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한편 혈구 용적의 영향을 배제한 자료에서는 변화가 없다고도 하였다. 혈중 연농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뼈로부터의 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경우에 임신 후반기까지 변화가 없다가 출산후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임신기간중 골격에 저장된 것이 유리되어 농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과거폭로에 의하여 높게 저장된 경우 태아의 위험이 증가되는데 골격에 저장된 것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위험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폭로경험이 있는 많은 수의 여성에서 임신전, 임신기간중 출산후의 적절한 혈중 농도 평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방법은 한 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첫 산전 진찰을 받으러 왔을때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알콜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대부분이 비직업여성이었고, 연(lead)에의 직업성 폭로는 없었다. 출산시와 출산후 6개월에 연 농도를 측정하였고 적혈구 용적으로 보정하였으며 paired t-test로 감정하였다.

결과로써 133명에 대한 출산시와 산후 6개월의 연농도는 6.7ug/dl, 9.6ug/dl 이었으며 유의하게 산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임신으로 인한 골격으로부터의 혈중으로 연이동의 가설을 증명하지는 못하였지만 한편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임신으로 인한 연농도의 감소와 산후 증가는 태아조직에서의 이동과 평형조절기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임신으로 인한 대사증가와 소변으로의 배설증가로도 볼 수 있겠다. 경구 피임제로 인한 호르몬변화가 연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앞으로의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 * * * *